

어두움을 두려워 하지 말라

본문

디모데전서 1:12-17

생각하기

잠깐! 정말 바울은 자신이 죄인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건가? 설마 진심은 아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 신약의 27권중에 13권, 즉 신약의 거의 반을 쓴 사람이다. 그는 분명 과장되어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아닌가?

그의 사역의 초반에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자” (고전 15:9) 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 그는 모든 성도 중에 극히 작은 자 (엡 3:8) 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자신이 죄인중에 괴수라고 믿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에 자라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으로 자랄수 있음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비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두울 때에 밖에서 놀 때면 그다지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밖을 내다 보았을때, 밖이 얼마만큼 어두운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두움을 점점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용서가 더욱 필요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볼수록, 우리는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더욱 주님의 용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적용

- 당신은 지난 시간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써 나아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 하신 방법들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기운내어라! 당신이 상상했던 것 보다 당신은 더욱 죄인이고, 당신이 소망하는 것 보다 당신은 더욱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쓴 잭 밀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처럼 닮아 갈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았을때, 우리가 측량할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갈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by Brett Wirebaugh

Brett Wirebaugh is the Associate Pastor for Youth and Families at Harvest Presbyterian Church in Medina, Ohio. He is also the author of a young adult Christian novel titled [Half-Tail Rising](#).